

전북 제조업 ‘급랭’ 자동차 생산 28.3% ↓

생산·출하·소비 ‘동반 부진’… 산업구조 다변화 시급

전북 제조업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8월 공공업 생산이 전년 같은 달보다 8.4% 감소한 가운데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생산이 무려 28.3% 급감했다. 출하도 7.4% 줄고 대형소매점 판매마저 4.3% 감소하면서 생산과 출하, 소비가 동시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두드러져 협력업체와 고용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북 광공업 생산지수는 88.9로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했다. 계절조정지수도 94.8로 전월보다 9.0% 떨어졌다. 올해 전북 광공업 생산은 3월 -5.3%, 4월 -3.7%, 5월 -0.1%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6월 6.2% 증가하며 반등했다. 그러나 7월 다시 -0.9%로 돌아선 데 이어 8월에는 -8.4%까지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제조업 경기의 불안정한 흐름을 드러냈다. 부진의 중심에는 자동차가 있었다. 8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28.3% 급감했다. 음료도 27.9%, 기계장비는 14.2% 각각 감소했다. 반면 의약품은 50.9% 급증했고 종이

제품 9.0%, 식료품은 4.3% 증가해 업종별 경기 편차도 컸다. 생산 부진은 출하 감소로 이어졌다. 8월 광공업 출하는 전년 동월보다 7.4%, 전월보다 8.6% 각각 감소했다. 기계장비 출하가 32.0% 급감했고 비금속광물 -25.4%, 자동차 -22.6% 등 주력 업종의 감소폭이 컸다. 반면 의약품 출하는 50.6%, 기타 운송장비는 36.1% 증가했다.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14.6% 감소했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2.4%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재고는 48.3% 감소한 반면 기계장비는 70.0%, 전기장비 25.0%, 화학제품은 14.3% 증가했다. 생산과 출하가 함께 감소한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재고가 늘고 있다는 점도 향후 경기 흐름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지역 소비시장에도 찬바람이 이어졌다.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8.3으로 전년 동월보다 4.3% 감소했다. 오락·취미·경기용품 판매는 증가했지만 음식료품과 신발·가방, 가전제품 등은 감소했다. 다만 판매 감소폭은 6월 15.0%에서 7월 6.4%, 8월 4.3%로 줄어 소비 부진의 강도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북 경제의 생산과 출하가 동시에 큰 폭으로 줄고 소비까지 감소세를 이어가는 만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수출 확대와 투자 촉진, 지역 소비 활성화를 아우르는 대응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기업신용 ‘최고 등급’ 획득 우량한 재무구조 인정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지난달 29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등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신용 최고 등급인 ‘AAA’를 받았다. 공사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공기업으로서 높은 사업 공공성과 확고한 사업 지위를 갖추고, 대규모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우량한 재무 구조와 무차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공사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순이익 흑자를 기록해 왔고, 지난해에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첫 분양을 완료하고 설립 이후 최대 132억원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사업 성과를 거뒀다. 나경균 사장은 “스마트 수변도시와 제2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이번 기업신용 ‘AAA’ 등급을 바탕으로 향후 공사채 발행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을 갖추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장 앞두고 배추·무 가격 ‘흔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부 전망의 정확성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정부가 발표한 주요 농산물 가격 전망 가운데 45%가 실제 가격과 10% 이상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장 핵심 품목인 배추와 무는 절반 이상 전망이 실제 가격과 크게 어긋나 농산물 수급·가격 예측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9개 농산물에 대해 내놓은 월별 가격 전망 441회 가운데 199회(45.1%)가 실제 도매가격과 10% 이상 차이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애호박의 오차가 가장 컸다. 50차례 가격 전망 가운데 40회(80.0%)가 실제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났다. 오이도 50회 가운데 31회(62.0%)가 빗나갔다.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배추와 무도 예측 정확도가 낮았다. 배추는 50회 가운데 29회(58.0%), 무는 28회(56.0%)가 실제 가격과 10% 이상 차이를 보였다. 대파도 49회 가운데 23회(46.9%)가 10% 이상 차이가 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높은 품목의 오차 비율은 낮았다. 사과는 40.5%, 양파 28.0%, 감자 26.0%였으며 마늘은 50차례 가운데 4회인 8.0%에 그쳤다.

특히 전망이 크게 빗나갔을 때 실제 가격이 정부 전망보다 높았던 경우가 많았다. 10% 이상 차이가 발생한 199회 가운데 실제 가격이 전망치보다 높았던 경우는 133회로 66.8%를 차지했다. 실제 가격이 전망보다 낮았던 경우는 66회였다.

지난 2024년 9월 배추 가격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배추 10kg 가격을 1만5천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서울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2만4천874원으로 전망치보다 약 66% 높았다.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호박은 293곳, 오이는 551곳의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월 1회 전화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대파 역시 490개 농가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재배면적과 작황, 출하 의향 등을 파악한다. 반면 배추는 1천806개 농가 전화조사에 대해 말 실측과 드론 촬영, 산지 모니터링 등을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격 전망 오차가 크게 나타나 기상과 작황, 출하시기 등 급변하는 시장 변수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예측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채소의 가격과 수급 전망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라며 “전화 조사에 기대는 품목부터 현장 조사를 보강하고 수확량과 시장 출하시기를 제때 파악하는 체계를 갖춰 수급 전망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농산물 더 팔아도 남는 건 줄었다”

농진청, 49개 작목 평균소득 7.7% 감소

농산물 판매 수입이 늘었지만 생산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농가의 실제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능한 49개 작목의 10아르(a)당 평균 소득이 전년보다 7.7% 줄어 농자재와 인건비 등 경영비 상승이 농가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년도 농산물 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5천300농가를 대상으로 51개 작목의 생산량과 수취가격, 농자재·노

동 투입비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생산량 단위가 다른 노지 풋옥수수과 시설장미를 제외한 49개 작목을 비교한 결과 10a당 평균 소득은 2024년보다 7.7% 감소했다. 49개 작목의 총수입은 전년보다 1.2% 증가했지만 경영비가 9.2% 늘면서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비용별로는 대농기구·시설 수리 유지비가 22.2% 급증했고 고용노동비 16.2%, 수도광열비 11.8%, 무기질비료비도 10.3% 각각 증가했다. 작목별로는 시설 수경딸기의 10a당 소득이 1천64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설 가지 1천325만원, 시설 토경

딸기 1천260만원, 시설 수경 방울토마토 1천214만원, 시설 파프리카 1천198만원 순이었다. 노지재배 작목에서는 4년근 인삼이 10a당 74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블루베리 741만원, 사과 57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조사대상 51개 작목 가운데 2024년보다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21개, 감소한 작목은 30개로 집계됐다. 시설 토경딸기와 시설수박, 맥류 등은 작황 회복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소득이 늘었다. 자두와 복숭아는 생산량이 줄었지만 가격 상승폭이 더 커 소득이 증가했다. 반면 당근과 수경토마토는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가격 하락폭이 커 소득이 감소했다. 시설고추와 고랭지무, 대파 등은 생산량 감소에 가격 약세까지 겹치면서 소득이 줄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최근 경영비가 급증한 부분을 파악해 농업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인건비와 농자재·에너지 비용 상승까지 겹치고 있는 만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과 경영비 부담 완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 농지 전수조사 바탕 관리체계 개선

연말까지 현장확인… 경미한 불법전용은 양성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에 맞는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과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임대차와 경미한 위반사항은 정상화·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도내 약 106만 필지(약 15만4천ha)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약 53만 필지(약 7만5천ha)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8월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6만 필지(4만2천ha)에 대한 현장 확인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관리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영농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중대한 불법전용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고령화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등을 통해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적법한 전용이 가능했으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미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조치법 제정과 연계해 사후 전용추진 등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한 농지 훼손이나 명백한 투기·불법행위는 대상에서 제외해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해 농업인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농협, 전주교대 군산부설초에 ‘교실숲’ 조성

제27호 현판식… 농업의 소중함 일깨워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지난달 30일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서선영)에 친환경 녹색교실인 ‘NH교실숲’ 제27호를 조성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협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3개 시(전주·익산·군산)와 함께하는 스쿨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실숲 조성 행사에서는 교실숲 현판식을 갖고, 공기정화식물인 아라우카리아(대형식물)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파초임엽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학생들은 파초임엽 식물키트를 직접 심고 완성하는 체험활동을 진행했으며, 김성훈 본부장도 학생들과 함께 식물키트 심기 체험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식물의 특징과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고 자신이 직접 심은 식물을 꾸준히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심고



<사진=전북농협>

가꾸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식물을 담은 스팀 화분은 버려진 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해 만들어졌으며, 이번 교실숲 조성으로 인해 교내에는 연간 이산화탄소 29kg 및 미세먼지 130g이 흡수되고, 산소 397kg이 생산될 것을 기대된다. 김성훈 본부장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나누는 것이 농심전신 운동의 중요한 실천”이라며 “학생들이 자연을 가까이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지난달 16일 이리동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도내 9개 초등학교 1,068명의 학생과 함께 NH교실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농심전신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점음 가을 하루에…구절초 축제 연계 ‘농뚜레일’ 예약

점음시가 무성서원과 구절초 꽃축제, 농촌 체험을 하루에 즐기는 기차여행 상품 ‘구절초 향기 따라 떠나는 농뚜레일’ 예약을 받는다. 시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 구절초 꽃축제가 열리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화요일을 제외하고 운영하며, 점음의 관광지와 농촌 체험장장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여행객은 케이티엑스(KTX)를 타고 점음역에 도착한 뒤 연계버스로 이동한다. 오전에는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을 둘러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백년가게’로 선정된 대일정에서 떡갈비 또는 참계장 정식으로 점심을 먹는다. 오후에는 구절초 동산에서 꽃축제를 자유롭게 관람한다. 이어 산림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선정된 들꽃마당으로 이동해 유리 용기 속에 나만의 작은 정원을 꾸미는 체험에 참여한다. 예약은 오는 11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농촌지원과 생활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김정민 기자

전북지역 유망 스타트업과 지역 청년 인재를 직접 연결하는 채용·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창업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를 동시에 넓히기 위한 시도로,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전북청창사)가 지난 2018년 개소 이후 380명의 청년창업 CEO를 육성하고 8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현진, 중진공)는 원광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원광대 60주년기념관 아트스페이스홀에서 ‘2026 Start-up Job Connect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대표 창업보육 플랫폼인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유망 스타트업과 지역 청년 구직자를 직접 연결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광대 재학생과 익산지역 구직자, 유관기관 관계자, 전북청창사 입교·졸업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플즈다이나믹스 강중수 대표의 특강을 시작으로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 6개사의 기업 소개가 이어졌다. 토크콘서트에는 ㈜포어스 신수지 대표와 ㈜유독컴퍼니 김준령 대표, ㈜다올씨엔티 유수정 대표가 참여해 창업

과정과 기업 성장 경험, 기업문화와 인재상 등을 청년들과 공유했다. 참가 학생과 구직자들은 스타트업의 사업 분야뿐 아니라 실제 채용 직무와 기업문화, 취업에 필요한 역량 등을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으며 진로와 취업 가능성을 탐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스타트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들에게는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전북청창사는 지난 2018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청년창업 CEO 380명을 육성했다. 이들 기업의 누적 매출은 537억 원에 달하며 모두 8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투자 연계와 후속 성장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진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은 “지역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가까이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 스타트업과 청년 인재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스타트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만남을 실제 채용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가는 지속적인 일자리 매칭과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중대 교권침해 ‘원스톱 지원단’ 가동

사안 접수~종결까지 1대1 전담, 법률·심리 치료비 등 일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초기 접수부터 사안 종결까지 전 과정을 1대1로 밀착 관리하는 ‘원스톱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피해 교원이 복잡한 대응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고 상처 치유와 교육활동 복귀에 전념하도록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원단은 교육인권보호관이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사건에 즉시 투입된다. 전북

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을 단장으로 교권보호관이 총괄하며 변호사, 전문상담사, 행정 주무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절차를 일괄 지원한다.

특히 사안별로 피해 교원과 소통하는 ‘현안관리 책임자’를 1대1로 지정한다. 현안관리 책임자는 초기 상담부터 법률·심리·행정 지원 연계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사안 수위에 따라 대응 협의회를 가동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 요청, 가해자 면담 및 중재 등 능동적인 조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교원보호공제사업과 연계해 민·형사 소송비용과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지원, 긴급 경호 서비스 등 실질적인 회복 방안도 함께 제공한다.

전호성 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혼자



라느 불안을 느끼지 않고 회복에 집중하도록 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전북교육청>

/최성민 기자

전교조 ‘갑질·괴롭힘 방지 조례’ 개정 환영

“엄정 처벌로 실효성 확보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환영 입장을 냈다.

지난달 30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조사 중 신고자와 피신고자 분리, 결과 통지 의무화,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며 “적용 범위를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까지 확대한 점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독립적인 갑질판정위원회 설치, 2차 가해 조치 및 재조사 절차 마련, 정기 실태조사 등을 반영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갑질이 확인된 사안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제도의 신뢰가 생긴다”며 “피해자 보호와 관리자 예방 교육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뿔다

익산시가 원도심에 홀로그램·확장현실(XR) 등 실감콘텐츠 산업을 입혀 기업과 창작자, 콘텐츠가 모이는 문화산업 거점으로 키운다.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익산시 문화산업진흥지구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구상과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문화산업 관련 기관과 시설 등을 집적해 산업을 장려·촉진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구 지정을 목표로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해 왔다.

시가 구상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중앙동·마동·인화동 일원 41만 5,965㎡ 규모다. 원도심 곳곳에 있는 문화자원과

익산이 보유한 홀로그램·XR 등 실감콘텐츠 산업 기반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의 공간적 범위와 문화산업 육성 방향, 향후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에 반영해 이달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익산이 가진 실감콘텐츠 산업 기반과 원도심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지구 지정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과 창작자들이 활동하며 익산만의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미 시애틀서 ‘전북유학’ 외연 확장

시애틀한국교육원과 협약 단기 체험캠프 집중 소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국 시애틀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재외 동포와 외국인 청소년 대상의 ‘전북유학’ 유치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호성 교육감은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지난 달 28일과 29일 시애틀한국교육원과 페더럴웨이 교육구, 올림픽뷰 초·중학교, 디케이더 고등학교, 워싱턴대학교 등을 찾아 한국어교육 지원과 학생 교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방문단은 시애틀한국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어교육 기반의 교육 교류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페더럴웨이 교육구와 올림픽뷰 공립학교를 방문해 재외동포를 포함한 해외 청소년 대상의 11일 과정 전북유학 단기 체험캠프를 집중 소개했다.

해당 캠프는 해외 청소년들이 도내 학생들과 정규 수업을 함께 듣고 한옥 생활과 향토 음식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단기 체험을 중장기 유학으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전 교육감은 대니 파이퍼 페더럴웨이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캠프 참여를 위한 이사회 승인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검토 약속을 받았다.

아울러 방문단은 올림픽뷰 공립학교에 한국어 도서 100권을 기증하고 현지 재외 동포 및 한글학교 관계자들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호성 교육감은 “해외 청소년들이 전북에서 생활하며 미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전북유학의 핵심”이라며 “현지 학교와 재외동포사회 협력을 강화해 국제교육 교류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사진=전북교육청>

/최성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글로벌헬스코디네이터 양성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의료관광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 전북 글로벌헬스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교육생을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소를 둔 의료업계 종사자, 도민 등 의료관광 분야의 전문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다.

선발은 신청서 접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까지 단계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직무 △SNS 플랫폼을 활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외국인환자 응대 및 서비스 등이다. 특히, 글로벌헬스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교육을 운영해 교육생들이 의료관광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생들이 의료관광에 대한 이론과 현장 실무를 함께 익히고,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광대학교 호텔관광과 또는 재단 관광콘텐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어린이 창작뮤지컬 공연

10~11일 양일간 선배

군산예술의전당은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어린이공연장에서 어린이 창작 뮤지컬 ‘꼬마해적단과 보물섬’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80%를 지원받아 제작됐다.

공연은 군산항에 사는 어린이 밝음, 강두, 새롬이가 ‘마을의 100년 전 이야기’를 찾는 방학숙제를 하기 위해 신비로운 일기장을 열면서 시작된다. 세 아이는 갑자기 나타난 한울이와 함께 꼬마해적단이 돼, 마을의 보물을 빼앗아간 까마귀 선장 일당에 맞서 모험을 떠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군산항, 뜬다리부두, 어청도 등대 등 군산의 명소를 접목해 역사 이야기까지 더했다.

군산의 100년 전 이야기를 찾아가며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이번 공연은 다양한 관객 참여형 프

로그램으로 진행돼 재미를 더한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는 화려한 영상과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 신나는 음악과 안무가 어우러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어린이 관객들이 모험을 따라가며 웃고 즐길 수 있도록 장면마다 세심한 재미 요소를 담았다.

군산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연

작으로, 향후 타 지역 투어까지 고려해 제작한 작품”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공연장을 찾아 스킵 넘치는 보물섬 탐험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작뮤지컬 ‘꼬마해적단과 보물섬’은 24개월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링크를 통해 1개 아이디(ID)당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작으로, 향후 타 지역 투어까지 고려해 제작한 작품”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공연장을 찾아 스킵 넘치는 보물섬 탐험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작뮤지컬 ‘꼬마해적단과 보물섬’은 24개월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링크를 통해 1개 아이디(ID)당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오는 13일까지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모집

익산시가 민선9기 시민과의 약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꾸린다.

익산시는 오는 13일까지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에 참여할 시민 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세부 추진계획 등을 살펴보고, 실천계획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청은 1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으로 공약사업과 시정 발전에 관심 있는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역별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인구비율을 고려하고, 연령과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안배해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민선9기 5대 시정방침에 따라 분과별로 구성되며, 오는 11월까지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해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익산시 누리집 메인화면 내 시민참여 배너에 게시된 QR코드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접수 방법은 익산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 캠페인 전개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시립도서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잇따른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범죄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새로운 위협에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역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자체 제작한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며 △알기 쉬운 개인정보 개념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실천 수칙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 차원에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신뢰받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세외수입 운영 성과 빛났다… 전북도 ‘ 으뜸상’

익산시가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와 징수율 제고 성과를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돼 으뜸상과 시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실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는 △세외수입 징수 실적 △징수액 증감 실적 △과태료 징수 실적 △이월체납액 감소처분 실적 등 9개 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익산시는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고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세외수입 전반에서 거둔 성과를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지열 익산시 징수과장은 “이번 수상은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도시” 2(題)

군산시, 창업 성공 모델 자리매김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청년 초기 창업가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창업희망키움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창업 성공 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업희망키움사업’은 유망 청년 예비 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 기존 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투자비, 창업활동경비, 1:1 맞춤형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군산시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 정책이다. 2019년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당시 정부 지원으로 시작돼,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2022년부터는 전액 시 자체 예산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사업 시작 이후 총 7개 기수 110명의 청년 창업가를 지원했으며, 현재 8기

10명의 청년 창업가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누적 매출 126억원 돌파, 신규 고용 108명 창출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군산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창업희망키움 8기 참여기업 10개 사에 공식 인증패를 전달했다.

이득만 군산시 기업지원과장은 “창업희망키움사업은 창업가들이 초기 리스크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갖춘 지역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핵심 마중물”이라며, “그간 뚜렷한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군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청년 일자리 축제’ 개최

정읍시가 오는 8일 실내체육관에서 ‘2026 정읍시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을 연다. 현장면접에 참여하는 기업 20곳은 79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기업 21곳, 공공기관 5곳, 관계기관 8곳, 취업 준비 체류 11곳 등 모두 45개 공간이 마련된다. 기업 21곳 가운데 20곳은 현장면접을 진행하고, 1곳은 회사와 채용 정보를 소개한다.

시는 행사 전에 구직자가 기업의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업과 미리 연결해 준 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도 행사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 면접을 볼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전북은행, 한국토지주택공

사 등은 채용 정보와 직무·재무 상담을 제공한다. 취업 준비를 돕는 체류도 운영한다. 구직자는 이력서 작성 상담과 가상현실(VR) 모의 면접을 이용하고, 증명사진 촬영과 어울리는 색 찾기, 머리 모양 상담, 취업 타로 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정읍시 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미리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청년들이 지역기업의 다양한 일자리와 직무를 직접 살펴보고 면접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기업에도 필요한 인재를 만날 기회가 되도록 행사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일자리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대상포진 접종 지원 확대

75세 이상에 1화… 건강 보호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익산시가 고령층의 건강을 지키고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달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8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선9기 익산시가 시민의 활기찬 노후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어르신·서민 생활비 절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시민까지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지난 7월 90세 이상 시민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8월에는 8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으며, 이번에는 75세 이상까지 확대해 더 많은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롭게 확대된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시민 가운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이다. 대상포진 백신 1화분을 지원하며, 접종 시행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최근 1년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위탁의료

기관 현황과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달부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여러 예방접종을 함께 희망하는 경우 의료진과 상담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접종 일정을 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대상포진은 고령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고 심한 통증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시민 건강 증진과 예방접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구절초 꽃축제’ 8일 개막

18일까지 맛과 문화 즐길거리 ‘풍성’

정읍시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산내면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제19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를 연다. 올해 주제는 ‘머무는 가을, 구절초에 담다’로, 꽃을 보고 떠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원을 걸으며 공연과 음식,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민다.

38만㎡에 이르는 축제장은 구절초정원과 참여정원, 물결정원, 들꽃정원, 솔숲정원으로 나뉜다. 소나무 3000여 그루 아래 15만㎡의 흰 구절초가 펼쳐지고, 정원을 따라 구절초포도와 생태습지, 출렁다리, 전망대가 이어진다. 정원을 순환하는 ‘구절초 꽃열차’와 전문 해설

사가 동행하는 탐방도 운영한다.

개막공연은 10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참여정원 내 잔디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박지현, 김희재, 김다현, 신동재와 지역 가수가 무대에 오른다. 올해 새롭게 마련한 치유 체험도 눈길을 끈다. 9일 말차쇼를 시작으로 11일 한의사 김오근, 17일 개그맨 안운상, 18일 시인 나태주가 ‘명사 토크콘서트’에 출연한다. 방문객은 반려동물 관리반 상담과 반려화분 만들기, 오감 만족 나무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걷다 지친 발을 쉬게 하는 구절초 연수 족욕, 건강 식재료로 꽃김밥과 꽃떡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여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구절초 특징물(캐릭터)인 단이와 초이를 꾸미는 ‘구절초 플라즈’도 더해졌다. 소나무 숲과

잔디광장에는 앉아서 풍경을 감상하는 ‘꽃멍·정원멍’ 쉼터를 마련한다. 시는 주요 산책로의 턱을 없애고 완만한 전방용 나무길을 늘렸으며, 주요 구간에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해 소형 전기차 2대를 순환 운행한다. 또한 자연 속 힐링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식당 부스 다화용기 도입을 통한 일회용품 최소화, 바가지요금 근절, 철저한 안전 관리를 ‘3대 안심 과제’로 정하고 쾌적한 축제장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꽃과 숲에서 천천히 걷고 쉬며 정읍의 맛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축제 문의는 시 산림복지과 구절초정원팀으로 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지난달 30일,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57호와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1,506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분할·합병, 멸실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인터넷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주택가격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산시청 세무과 및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가격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공공금,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설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장, 시민 불편 해소총력

불편민원 접수 현장 방문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장이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충영 의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최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먼저 김 의장은 수풀이 우거져 주민들 산책 시 시야를 가려 불편을 주고 미관을 저해하는 마동공단 녹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목정비와 수풀 제거를 요청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운동장 옆에 위치한 화장실 폐쇄 구역을 찾았다. 해당 장소는 화장실이 폐쇄된 후 관리되지 않아 주변 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방치돼온 곳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오염 실태를 확인하고 인근 주민들이 편의를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주민들의 위생을 위한 정화 및 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영 의장은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재난상황, 밤낮없이 살핀다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정읍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재난안전상황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하고, 연중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전담인력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지역의 재난·사고 발생 상황을 살핀다. 상황이 접수되면 발생 장소와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담당 부서에 보고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한다. 초기 정보가 늦게 공유돼 대응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기관 간 연락도 맡는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군산서 나운지구대 ‘노쇼’ 예방 홍보 활동

수법 지능화… 피해 방지 최선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 나운지구대는 관내 유동인구 밀집지역,식당 및 상가를 방문 업주 상대로 ‘노쇼’ 및 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 더 홍보에 집중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보자는 의미로 진행하게 됐다.

범인들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시청·관공서를 사칭해 소상공인지원금, 민생지원금 지급을 빌미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해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범죄에 연루돼 있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하기도 하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접근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유형의 ‘노쇼 사기범죄’ 및 보이스 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있다.

이에따라 나운지구대는 유동인구가 많은지역, 노인정, 공원인구, 대규모상가 및 식당가를 방문해 업주, 종업원, 손님을 상대로 최근 보이스 피싱 사기유형 및 피해사례를 게재한 전단지 배포하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나운지구대장(경정 김대중)은 “지역 및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펼치며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수 있는 초석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공공비축미곡 매입 준비

정읍시는 지난달 29일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계자 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매입 품종과 매입 방법, 현장 안전수칙을 공유해 농업인의 출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제2차 3층 1강의실에서 열린 '2026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계자 교육'에는 읍·면·동 행정 담당자와 정부양곡창고 소유주·관리자, 기무살 생산단지 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매입 현장 안전사고 예방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과 방법

△가라쿠살 매입 관련 사항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을 다뤘다. 시는 특히 올해 매입 품종인 ‘신동진’과 ‘새창무’를 농업인에게 정확히 안내해 출하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매입 현장에 농업인과 차량의 이동이 집중되는 만큼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시는 이번 교육에서 공유한 매입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순창군, 교육혁신으로 지역소멸 돌파

농촌유학·선도지역 공모 등 논의 교육발전특구 성과 점검·협력 모색

순창군은 지난달 29일 순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순창교육지원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교육 발전과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순창군과 순창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비롯해 어학 및 진로진학센터 운영,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추진, 창의예술 미래공간 조성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직선교육과 AI·디지털 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사진=순창군>

또한 올해 지정 3년 차를 맞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허인석 순창교육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과 긴밀히 소통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꿈을 키우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이들이 배우며 꿈을 키우는 순창, 교육이 강점이 돼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이날 협의회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를 안내하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국제도예캠프, 세계 11개국 도예인 한자리

2~4일 사량의광장 일원에서 개최 조선 도공·한일 도자문화 조망

흙과 불을 매개로 세계 도예인들이 하나 되는 ‘제15회 남원국제도예캠프’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남원 사량의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흙의 울림,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는 국내외 도예작가와 대학생, 시민들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세계 11개국 128여 명의 도예인이 참여해 작품과 기술을 공유하며 국제적인 교류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 도공들의 역사를 되조고, 그로부터 이어진 한일 도자문화의 인연을 남원에서 다시 조명한다. 일본 사쓰마 도자의 맥을 잇는 15대 심수관과 14대 이삼평이 참여해 400여 년 전 조선 도공들이 남긴 발자취를 되새기고, 오늘날 한일 도자문화 교류의

의미를 살펴본다.

행사 첫날인 2일에는 참가자 등록을 시작으로 국내외 초청작가 워크숍과 도예힐링캠프, 라꾸소성, 초청작가 강연 등이 진행된다. 오후 3시에는 15대 심수관이 ‘일본도예의 갈림길(Japanese Ceramics at a Crossroads)’을 주제로 초청특강을 진행하며, 일본 도예의 흐름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오후 5시부터는 남원 사량의광장에서 국내외 도예가와 대학생, 주요 내빈 등 약 310명이 함께하는 개막식이 열린다.

둘째 날인 3일에는 국내외 작가들의 창작 교류와 학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오전부터 최성재, 중국의 담단우(Tan Danwu), 대만의 조유주(You Chu, Chao), 일본의 미야시타 요(Yo Miyashita) 등 국내외 초청작가들의 워크숍과 강연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최수진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와와의 만남’도 마련된다.

같은 날 오후 6시부터는 남원 사량의

광장 주무대에서 남원국제도자문화제 미나가 열린다. 이를 통해 국제 도예교류와 지역 문화발전의 사례를 공유하고, 남원 도자문화의 확장 가능성과 향후 교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마지막 날인 10월 4일에는 참가자들의 기량을 겨루는 남원국제도예캠프 물레경진대회가 펼쳐진다. 오전 9시부터 경진대회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오후 2시 30분부터 시상식과 폐막식이 열린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동안 시민과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된다. 세계 각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국제도예작가 기획초대전을 비롯해 대학생들의 창작 생활도지를 만날 수 있는 전국대학생 도자아트페어가 마련된다. 시민들을 위한 도예힐링캠프에서는 시민과 관람객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도자를 만들어보며 도예의 매력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친환경 전기자동차 107대 추가 보급

승용 75대·화물 32대 지원 국도비 추가 확보 사업 확대

완주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

군은 올해 총 32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53대(승용 193대, 화물 60대)를 보급한 데 이어 하반기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 107대를 더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 75대와 전기화물 32대로, 군민들의 친환경 차량 구매 수요를 충족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10월 중순 공고를 목표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도

비 확보를 마치는 대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자세한 보급 일정과 공고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이나 관내 사업체 등은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자동차 제조·판매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추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도비 내시와 예산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모범 어르신·복지 기여자 표창 500여명 참석 공연·기념식 등

순창군이 지난달 30일 군민예술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의 어르신과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및 내외 귀빈 등이 참석해 노인의 날을 축하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행사는 난타, 예술단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표창장 수여, 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평소 사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 어르신 및 노인복지 기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최일천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회원 간 화합과 지역사회 봉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지역의 발전과 안정된 삶의 기반에는 어려운 시절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과 보다 세심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사진=남원시>

남원시, 초교 개학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안전 점검

남원시는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남원경찰서, 남원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도통초등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진했으며,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알리는 한편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았다.

시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도통초등학교 앞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

동 캠페인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등굣길 초등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수칙과 자전거 운행 가이드를 담은 홍보물을 나눠주며 올바른 보행 습관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 살피기,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하기 등 일상에서 꼭 지켜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캠페인 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공사장과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주차차 예방 활동을 펼쳤다. 또한 캠페인 이후에도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동상면 ‘고종시 감의 날’ 풍년 기원 행사

완주군 동상면이 지난달 29일 동상면민운동장에서 지역 대표 특산품인 고종시 감의 풍년 수확과 농가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15회 동상 고종시 감의 날 문화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성종기 완주군의회 의장, 군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꽃감 채배 농가 및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통기타, 라인댄스, 판소리 등 다채로운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본행사에서는 기원 의례를 올리며 한 해 동안 정성으로 감나무를 가꾸은 농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안전사고 없는 풍성한 결실을 함께 기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50여 일간의 기다림을 통해 고종시 꽃감을 만들어 내는 정성과 고종시 시조목 보전을 위한 후계목 식재 등 고종시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이번 고종시 감의 날 행사로 결실을 맺었다”며 “완주군에서도 이러한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동상 고종시 꽃감이 명품 농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경천면 구룡천변 코스모스 꽃물결 ‘만개’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구룡천변 일대에 활짝 핀 코스모스가 분홍빛 꽃물결을 이루며 가을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군도 17호선 인근 구룡천변에 자리한 2만 3,100㎡ 규모의 코스모스 꽃밭은 현재 만개해 오가는 운전자와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꽃밭을 찾은 나들이객들은 활짝 핀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며 걸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국토공원화사업의 하나로 경천면이 직접 정성을 들여 가꾸어 왔다. 경천면은 봄철 제방길 금계국에 이어 가을철 구룡천 둔지 코스모스까지 계절마다 색다른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이승희 경천면장은 “청정 지역 경천의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국도변과 구룡천 제방을 아름다운 꽃길로 정성껏 가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문객들과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깨끗하고 정감 어린 경천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산모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달 30일 관내 임신부 및 출산 후 2년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마음껏 피는 Mom’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신건강 교육과 자기돌봄 체험을 통해 산전·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임신부와 산모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교육과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옴니핏(맥과 등 생체신호를 측정해 스트레스 상태를 확인하는 기기)을 활용한 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을 진행했다. 이어 원예심리상담사의 지도로 꽃을 활용한 자기돌봄 프로그램 ‘꽃과 함께 나의 마음도 돌보는 시간’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모는 “출산 후 아이를 돌보느라 제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 마음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꽃을 만지며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공직자 대상 로컬푸드 식농교육 진행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이 군정의 핵심 정책인 지역먹거리 체계를 공직자들과 함께 되조여내고 공급대를 넓히는 뜻깊은 배움터를 마련했다.

군은 최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소속 공직자 20명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로컬푸드 식농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로컬푸드와 지역먹거리 정책의 추진 배경과 본래 취지를 직원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와 일상 속에서 이를 제값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이론과 체험 2부로 나눠 운영했다. 1부에서는 로컬푸드 정책의 발자취와 주요 성과, 생산·유통·소비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먹거리 체계를 심도 있게 다뤘다. 이어 2부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백김치 담그기 조리 실습을 진행해 직원들이 로컬푸드의 신선함과 우수성을 몸소 체험했다.

최옥련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지역먹거리 정책의 가치를 폭넓게 헤아리고,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도 그 의미를 적극 살려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전북 장애인 800여명 완주군서 ‘화합 한마당’

꿈드래장애인협회 체육대회 복지 유공자 표창·장학금 전달

전북 도내 장애인과 가족,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완주에 모여 우정을 다지고 소통하는 화합의 큰잔치가 지난달 30일 열렸다.

(사)꿈드래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완주군지부가 주관한 이번 ‘제23회 한 마음체육대회 및 문화공연’은 완주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

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군수, 군의장, 고용노동부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장, 도교육감 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어 도내 취약계층 자녀 가운데 성실하고 학업에 충실한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체육대회에서는 고리던지기, 한궁, 스태킹바스켓, 단체 윷놀이, 토스볼 등 다채로운 종목을 운영해 평소 바깥 활동 기회가 적은 장애인 회원들이 맘껏 체육활동을 즐기고 서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공연에서는 회원들이 숨은 끼와 노래 실력을 뽐내고 경품 추첨을 함께 하며 활발한 소통과 친목을 다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가을의 문턱에서 행복경제도시 완주에 꿈드래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을 모시기 되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완주군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당당히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장애인 복지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주민자치회 확대 ‘첫걸음’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위원대상제도 이해교육 주민총회·자치계획수립 방안 공유

순창군이 민선 9기 공약인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향후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일 군수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교육에는 이해경 협동조합 마을 N사람 마을자치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제도적 취지를 비롯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 위원 역할과 책임, 주민총회 운영, 자치계획 수립,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위원들이

수행하게 될 역할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군은 이번 교육을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한 첫 단계로 삼아 앞으로 읍·면별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순창형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돼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한전KDN 전북사업처 완주 이서면에 백미·김 기탁

한전KDN 전북사업처(처장 김민영)가 완주군 이서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김을 전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번 후원 물품은 한전KDN 전북사업처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으로 준비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지원된 쌀과 김은 관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전달됐다.

김민영 한전KDN 전북사업처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자 직원들이 뜻을 모아 후원 물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소미례 이서면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전KDN 전북사업처에 감사드린다”며 “복지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국제와이즈멘 전주모악클럽 전주시복지재단에 라면 등 기탁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전북지구 전라지방 전주모악클럽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국제와이즈멘 전주모악클럽은 지난달 30일 전주시복지재단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라면과 백미 등 13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라면 20박스(40개입)와 백미(10kg) 10포로, 전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섭 국제와이즈멘 전주모악클럽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광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한 물품을 후원해 주신 국제와이즈멘 전주모악클럽에 감사드린다”며 “후원해 주신 물품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익산 장애인·가족, 소라산공원에서 가을 나들이

신체활동·정서적 안정 도와

익산 소라산공원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장애인과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소라산공원에서 ‘장애인 숲속 재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부 활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신체활동을 돕고, 돌봄을 이어온

가족들에게 휴식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소라산공원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자연을 즐기고 신체활동을 했다. 이어 음악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며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자연을 느끼며 산책하니 스트레스 풀리고 다른 참여자들과 어울릴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새마을회, 고추장 담가 취약계층 전달

총 1800여 가구에 전달

정읍시새마을회가 회원 80여명과 함께 고추장을 담가 도움이 필요한 지역 1800여 가구에 전달한다.

새마을회는 지난달 30일 정읍시예술회관 공연주차장에서 ‘2026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를 열었다.

새마을회 임원과 정읍시새마을부녀회(회장 최금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등이 고추장을 만드는 일부터 포장까지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고춧가루와 된장 등으로 고추장을 담갔다. 완성된 고추장은 23개 읍·면·동과 사회복지시설을 거쳐 복지 지

원을 받기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배우자 이은주 씨와 이학수 시장 배우자 정종순 씨도 참여해 회원들과 함께 고추장을 만들었다.

최금순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만든 고추장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새마을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도 지역 곳곳에 나눔과 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새마을회는 지난달 30일 정읍시예술회관 공연주차장에서 ‘2026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를 열었다 <사진=정읍시>



고창군, 2026년 3분기 명예읍면장 14명 위촉

고창군이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3분기 명예읍·면장 14명을 위촉했다.

고창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2층 제2회의실에서 ‘2026년 3분기 명예읍·면장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14개 읍·면을 대표하는 명예읍·면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명예읍·면장은 △고창읍 김성훈 △고수면 이인지

△아산면 이종길 △무장면 김홍업 △공음면 강화철 △상하면 서순애 △해리면 김원봉 △성송면 강복남 △대산면 강순국 △심원면 김재을 △흥덕면 김영국 △성내면 장용균 △신림면 전만희 △부안면 주재만 등 총 14명이다.

명예읍·면장들은 위촉장 수여 후 해당 읍·면을 찾아 주요 업무와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행정업무를 직접 체험한다.

/고창=백종규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시에 장학금 기탁

익산시에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익산협의회가 익산사랑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최정호 익산시장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유제영 전북특별자치도회장, 이태평 익산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유제영 회장은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 인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는 책임 있는 건설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대명엘리에비터 이미진 대표 순창군에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대명엘리베이터 이미진 대표가 순창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광주에 소재한 ㈜대명엘리베이터는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 제조·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이미진 대표는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며 이름을 올렸으며, 기업 경영과 여성경제인으로서의 활동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미진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순창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기부가 순창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 고추장 나눔 봉사활동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여성회장 김명순)는 지난달 30일 김명수 부안군지회 여성회장 자택에서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고추장 나눔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절기를 맞아 지역 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 소속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 구슬땀을 흘리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철저한 위생 관리 속에서 질 좋은 국내산 재료를 엄선하여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을 직접 담갔다.

완성된 고추장은 포장 과정을 거쳐 관내 독거노인, 조손가정,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취약계층 가정에 빠짐없이 전달됐다.

/부안=신상수 기자

가을철 산불 예방 수칙



산림, 인접한 곳에서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금지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행 금지



산림 내 흡연 금지
성냥, 라이터 등 소지 금지



건조 특보 시
입산 자제 하기

〈一事一言〉



착공 약속 어긴 자광에 다시 기회 준 전주시...
‘이행 능력 검증’은 어디에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터 복합개발 사업시행사인 ㈜자광과의 '약속'을 다시 연장해 주었다. 자광이 전주시와 맺었던 '1년 내 착공' 협약 기한을 어겼지만, 전주시는 사업 승인 취소 대신 법적 소송 리스크와 주택법상 규정을 들며 조속한 착공을 독려하는 수준에서 사태를 단락 지었다. 자광이 요구했던 '동별 사용검사(단계별 준공)' 편법에 선을 긋고 '동시 착공·동시 준공' 원칙을 재확인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전주시의 대응을 바라보는 도민과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행정이 정작 명확히 대담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을 외면한 채 슬그머니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핵심은 당장 사업을 취소하느냐 마느냐의 법리적 결론이 아니다. 전주시가 상위법인 주택법 구조상 즉각적인 사업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행정적 고충과, 시행사 자광이 총사업비 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을 실현해 낼 실질적 '이행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전주시는 첫 번째 질문인 '법적 취소의 불가피성'에는 마지못해 답했는지 몰라도, 정작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두 번째 질문, 즉 '자광의 이행 능력 검증'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명확한 답도 내놓지 못했다. 바로 이 지점이 전주시 행정의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허점이다.

생각해 보라. 자광이 470m 높이의 초고층 관광타워와 3,500여 세대 아파트,

호텔, 복합쇼핑몰을 동시 착공·동시 준공 하겠다고 호기롭게 내건 사업은 6조 원이라는 거액의 자본이 동원되어야 하는 사상 최대의 지역 개발 프로젝트다. 그러나 협약 체결 1년이 지나도록 자광은 시공사 선정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고, 자금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으며 지방세와 공유재산 대부료 수십억 원을 체납해 전주시로부터 재산 압류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고 건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권과 대형 건설사조차 선뜻 손대지 못하는 6조 원대 공사를 중소 시행사에 불과한 자광이 과연 무슨 수로 수주하고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단 말인가. 전주시가 "법적으로 당장 취소할 수 없다"며 기한을 연장해 준 순간, 시장과 도민들이 원한 것은 단순한 '촉구 공문' 발송이 아니었다. 과연 자광이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가 금융권의 실질적인 확인서에 기반한 것인지, 시공 타당성이 검증된 대형 건설사와의 책임준공 도급계약이 실제로 임박했는지 행정이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이었다.

행정은 시장의 무모한 환상이나 시행사의 말뿐인 호언장담을 추인해 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법적 취소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자광에 사실상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면, 전주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객관적인 사후 이행 능력 검증 절차'를 즉각 가동해야 했다. 자금 조달 증빙 서류와 시공사 금융 확인서, 공

사 이행 보증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출받아 외부 전문가와 검증단을 구성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사업에 묶인 전주 시민과 지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검증 없는 기한 연장은 필연적으로 더 큰 재앙을 부른다. 만약 자광이 시간을 벌어놓고도 끝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공중 분해되거나 공사 도중 멈춰 선다면, 도심 한복판의 귀중한 땅은 기약 없이 방치되고 그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온전히 전주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그때 가서는 또 다시 주택법 핑계를 대며 법령 뒤에 숨을 것인가.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자광의 실질적 사업 이행 능력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공공 검증 테이블을 차려야 한다. 자광 역시 '동시 착공 기술 검토를 마쳤다'는 수준의 말뿐인 언론 플레이를 멈추고, 자신들의 재정 건전성과 시공사 계약 상태를 명명백백한 데이터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취소보다 먼저야 했던 것은 검증이다. 사업자의 부실한 자생력을 눈감아준 채 시간만 끌어주는 행정은 '협조'가 아니라 '방관'이자 '직무유기'다. 전주시가 진정 지역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자광의 손에 쥐어진 수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엄정하게 가려내는 칼을 빼 들어야 한다.

에는 절대 조금하게 이동해서는 안 된다. 둘째, '비상로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뚝자리를 파거나 통로를 막는 행동은 유사시 비상 차량 접근과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셋째, 만약 현장에서 밀집도가 높아져 위험을 느낀다면 즉시 진행 방향의 측면 넓은 공간이나 비상구로 신속히 탈출해야 한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주저 없이 주변의 경찰관이나 현장 안전요원 또는 112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안전 수칙을 지키는 소소한 배려와 질서 의식이 모일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을날의 추억은 비로소 안전하고 더 빛나게 될 것이다.

김제경찰서 경비안보과
순경 이강민

ㅣ 독자투고 ㅣ

안전이 더해질 때, 가을의 지평선은 더욱 아름답다



가을의 절실을 축하하는 계절이 찾아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감제지평선축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활기찬 가을축제와 다중모임 행사가 개최된다. 수많은 이들이 모여 즐거운 추억을 쌓는 공간이지만, 현장에서 제복을 입고 인파를 바라보는 경찰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안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다.

대규모 인파가 일시에 몰리는 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예측하기 힘든 위험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 밀집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끌려 다니다 인파 사고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 소방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현장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지역 순찰 강화, 비상 진출입로 확보, 교통 차로 가변 운용 등 다각도의 재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안전은 현장 통제관의 뒷만은 아니다. 안전한 축제 현장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현장을 찾은 방문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이다.

첫째, '우측통행과 서행'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동 시 앞서사람과의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특히 개·폐막식이나 드론쇼, 불꽃놀이 등 인파가 한곳으로 쏠리는 시간대

34년 끊긴 동서 3축, 무주~대구 고속도로 이번엔 결론내야

무주~대구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와 지역을 넘어 확산하고 있다. 전북과 대구·경북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지방정부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요구는 단순한 지역 SOC 민원으로부터 불사안이 아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무주에서 김천·성주·칠곡을 거쳐 대구 달성까지 84.1km를 잇는 사업이다.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30년이 넘도록 연결되지 못했다. 새만금에서 포항으로 이어지는 동서 3축 가운데 사실상 핵심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전북 동부권과 대구·경북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대전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국가 간선교통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다. 인구가 적고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SOC 사업을 단순한 교통수요와 비용편익만으로 평가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권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예타과정에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국가간선망 완결성, 지역균형발전, 산업·관광 연계와 영호남 상생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여야와 영호남 정치권이 함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도 공동 대응을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국가적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해야 한다.

34년을 기다린 도로다. 정부 역시 무주~대구 고속도로를 어느 한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동서교통망의 미완성 구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예타가 균형발전과 국가교통망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늘의시

시월 / 나희덕

산에 와 생각합니다
바위가 山門을 여는 여기
언젠가 당신이 왔던건 아닐까 하고,
머무 한 가지 꺾어
물 위로 무심히 띄워보내며
붉게 물드는 계곡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고,
잎을 깨치고 내려오는 저 햇살
당신 어깨에도 내렸으리라고,
산기슭에 걸터앉아 피웠을 담배연기
저 때도는 구름이 되었으리라고,
새삼 골짜기에 싸여 생각하는 것은
내가 벗겨여 살 이름
머무나 다래, 물든 잎사귀와 물,
山門을 열고 제 몸을 여는 바위,
도토리, 청설모, 죽부쟁이 뿐이어서
당신이름 뿐이어서



시인 약력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론집으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 1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월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대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8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8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개인이 실천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대중교통이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장바구니사용!

플라스틱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스마트 영수증!

종이영수증대신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전자 영수증 받기



텀블러 사용!

플라스틱 일회용컵,
종이컵대신 개인
텀블러사용하기



올바른 분리배출!

올바른분리배출, 자원
순환율이 높은 투명
페트병분리배출!



김제 황금들녘의 '짚'이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대표 농산물인 '쌀'은 세계 각국의 음식으로 변신한다. 여기에 벽골제의 쌍룡설화를 담은 공연과 풍년을 기원하는 줄다리기에 드론 스포츠와 세계인이 어울리는 놀이가 더해진다. 10월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벽골제 일원에서 열리는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모습이다. 축제 공간도 체험과 놀이, 휴식, 미식 등 다양한 콘셉트에 맞게 새롭게 구성한다. 익숙한 농경문화에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고, 낮에는 체험의 즐거움을, 밤에는 공연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편집자주)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K-농경문화, 지평선에서 빛나다 10월 1일~5일 벽골제 일원

들녘에서 이어온 전통, 함께 즐기는 농경문화
지평선축제의 중심에는 김제의 역사와 들녘에서 이어져 온 공동체 문화가 있다. 벽골제의 설화는 공연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으던 풍년의 의식은 방문객이 함께 하는 놀이로 이어진다.
대표 전통 프로그램인 쌍룡놀이는 벽골제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거대한 두 마리 용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축제가 열리는 지역의 이야기를 웅장한 연출로 만날 수 있어 벽골제를 찾는 의미를 더한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해 온 입석줄다리기도 빼놓을 수 없다. 여러 사람이 한데 힘을 모아 거대한 줄을 당기며 농경사회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가자와 관람객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한마당을 펼친다.
또한 벼 수확, 새끼 꼬기 등 농경체험을 통해 농촌의 생활과 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어른들에게는 농경생활의 추억을, 어린 세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세대가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이어진다.

K-농경문화, 지평선에서 빛나다!
「K-농경문화, 지평선에서 빛나다!」라는 슬로건에는 김제에서 이어온 농경문화를 세계인과 함께 즐기겠다는 뜻을 담았다. 놀이로 어울리고 전통예술로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 의미를 축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씨리퐁이 게임에서는 외국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게임과 놀이에 참여해 승부를 겨루고 서로를 응원한다. 언어가 달라도 함께 몸을 움직이고 웃음을 나누며 가까워지는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지평선 세계민속예술대전에서는 김제농요와 농악, 기점놀이 등 우리 고유의 민속예술과 일본 민속공연이 한 무대에 오른다.
벽골제의 하늘에서도 세계인이 함께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글로벌 세계연 한마당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기를 담은 연과 씨리퐁이 연 등 총 400개의 연이 동시에 하늘을 수놓는다.

놀이부터 농경체험까지, 달라진 축제 지도
축제장은 어린이 놀이와 가족 휴식, 전통 농경체험과 쌀 음식 등 공간별 특징을 살려 구성한다. 지평선 키즈파크와 어린이 플래닉존, 논체험장, 짚 테마파크, 씨리퐁이 빌리지 등 중심으로 방문객이 취향에 따라 찾아 즐길 수 있는 축제 지도를 선보인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지평선 키즈파크와 어린이 플래닉존이 반갑다. 키즈파크에는 대형 에어바운스와 회전목마, 씨리퐁이 달고나 만들기 체험을 마련한다. 숲속에 조성하는 어린이 플래닉존은 소나무를 활용한 그물로프 등으로 모험의 재미를 더한다.
단야의 꽃밭(40,000㎡)은 축제장에 새로운 풍경을 더한다. 꽃으로 꾸며진 공간과 단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 여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해, 체험과 놀이 중심의 축제장에 잠시 쉬어가며 경관을 즐기는 공간을 마련한다.
논체험장은 전통 농경문화와 새로운 기술이 만나는 공간으로 꾸민다. 벼베기와 탈곡, 도정, 지게지기 등 농사 과정을 경험하고, 새끼꼬기와 가마니짜기를 접할 수 있는 체험장에 지평선 드론 짚공 스타디움을 더한다.
넝쿨마당의 짚 테마파크는 농경문화의 소재인 짚을 놀이로 풀어낸 공간이다. 짚 미로와 짚공차기, 새총쏘기 등 체험에 짚 파리를 토퍼를 더해 놓고 쉬어갈 수 있도록 꾸민다. 레저월드에서는 황금들녘과 탁 트인 지평선을 배경으로 ATV를 타고 트랙을 돌며 김제의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농경문화와 기술의 만남, 색다른 참여의 재미
드론을 움직여 골을 노리고, 팀을 나눠 승부를 겨루고,

들녘에서 특별한 행운을 찾는다. 방문객이 직접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지평선 드론 짚공 스타디움에서는 드론축구 시연과 함께 축구·농구 등 드론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김제 대표 캐릭터 씨리와 퐁이를 활용한 '니판내판 알공쌀공 게임'은 매일 현장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승부를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팀원들과 힘을 모아 도전하는 재미를 선사한다.
메뚜기잡기 체험과 연계한 '황금메뚜기의 주인을 찾아라'는 들녘에서 특별한 행운을 찾는 이벤트다. 메뚜기를 잡는 재미에 황금메뚜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더해 체험의 즐거움을 높인다.

한 알의 쌀에서 시작되는 세계의 맛
먹거리에서도 농경문화축제의 특징이 드러난다. 김제의 대표 농산물인 쌀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음식과 새로운 조리법을 선보여, 한 끼를 즐기는 시간에도 쌀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세계 쌀음식 테마거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쌀요리를 맛볼 수 있다. 김밥과 떡볶이, 쌀국수, 파에야 등 각 나라의 개성이 담긴 음식을 통해 같은 쌀이 문화에 따라 얼마나 다채로운 맛으로 변하는지 경험할 수 있다.
김제쌀 본연의 맛은 아궁이 쌀밥짓기에서 만날 수 있다. 직접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밥을 짓고, 갓 지은 따뜻한 쌀밥을 함께 나누며 구수한 밥 냄새와 김제쌀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아궁이 쌀피자 굽스에서는 가루쌀을 활용한 화덕피자를 맛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평선 비어팩토리에서는 김제쌀로 만든 지평선 쌀떡주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지평선 맛집 장터에서는 읍면동 대표 음식과 '맛보자고 컴페티션'을 통해 선발된 관내 맛집의 먹거리를 선보인다.

낮부터 밤까지, 지평선의 빛나는 하루
해가 저문 뒤에도 지평선축제의 즐거움은 이어진다. 낮 동안 들녘에서 농경문화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면, 저녁에는 빛을 더한 전통놀이와 음악이 흐르는 무대가 방문객을 맞는다. 가족과 함께 놀이를 즐기고, 취향에 맞는 공연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밤에는 익숙한 전통놀이도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LED를 활용한 그네·투호·제기와 쥐불놀이·햇불 체험은 빛과 움직임이 어우러지는 재미를 선사한다.
제방마당 수로에 들어서는 높이 8m의 '자이언트 씨리퐁'도 야간 볼거리를 더한다. 낮과 밤 다른 분위기로 다가올 거대한 씨리퐁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명소가 될 예정이다.
무대에서는 세대별 취향을 아우르는 공연이 이어진다. 지평선 국악한마당은 우리 가락의 멋과 흥을 전하고, 청소년 가요제는 젊은 세대의 끼와 열정으로 무대를 채운다. 7090 콘서트에서는 익숙한 추억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가을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하루의 마지막은 지평선 파이널 멀티미디어쇼가 장식한다. 매일 밤 음악에 맞춰 펼쳐지는 불꽃과 레이저, 조명의 연출이 벽골제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누구에게나 편안한, 모두에게 열린 축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방문객 수용태세도 보완한다. 휴게시설과 주차, 이동 동선을 정비하고, 안내와 통역, 수유시설 등 방문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갖춰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개막 전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으로 시설과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5無(바가지요금, 불친절, 과도한 의전, 쓰레기, 안전사고)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